



## 중국, 유럽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

왕양비 연구원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유럽 지원 의사는 있으나 EFSF 으로부터 채권 매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EU 정상 간에 1조 유로 규모의 EFSF 기금 확대(안)이 합의된 다음날인 10월 28일 EFSF의 책임자인 클라우스 레글링(Klaus Regling)이 중국을 방문했으나, 채권 구조의 불확실성 등 투자 안전성 우려로 EFSF 채권 매입에 대한 중국당국자의 명확한 승낙을 얻지 못함.
    - 10월 29일 클라우스 레글링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EFSF 채권 발행 초기 EFSF가 20% 수준의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리스 채무의 50% 삭감 폭에 비해 20% 손실 담보는 중국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11월 2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유럽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EFSF 채권 매입 의사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밝힘.
  - IMF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IMF를 통해서 유럽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의 공동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
    - EFSF보다 IMF의 대출 대상국에 대한 자질심사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중국이 EFSF 채권의 직접 매입보다 IMF를 통한 유럽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유럽 지원을 계기로 중국이 IMF 내 지분을 확대 및 위상 제고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BRICs국가들이 거액 자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단독행동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중국이 금번 유럽 지원을 계기로 유럽의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IMF 내 위상 제고 등 여러 정치 및 경제적 조건을 내걸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내부에서도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클라우스 레글링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위원 리따오궈에 따르면 중국이 유럽의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 중지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가능한 협상 조건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완화, 중국의 완전시장경제 지위(full market economy status) 승인,<sup>1)</sup>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금지 해제, IMF 내 위치 부상 등이 있음.
  - 이에 대해 10월 30일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EU 의장은 유럽은 중국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이 투자한다고 해도 정치적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10월 27일 중국에 투자를 요청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중국 국내 언론도 유럽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며, 타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국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미국 블랙스톤과 모건 스탠리에 대한 투자 1년 만에 각각 23억 달러, 38억 달러의 거액 손실을 입은 중국 국부펀드 CIC가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EFSF 구입에 대해 대부분 중국 국민들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전문가들도 중국이 유럽 지원보다 자국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매일경제신문, Market Watch, Bloomberg News, WSJ, 11/2 등)

1) 완전시장경제 지위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anti dumping investigation) 시 피조사국의 실제 생산비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해당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필요조건으로 중국과 유럽 간 중요한 무역 협상 과제이며, 현재 대부분 유럽국가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유럽국가의 현지 생산비용과 가격이 피조사 중국 상품 '정상가격'의 계산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